

[ TV ]

중견배우들의 약진...극 중심으로 대이동

이순재·신구 등 농익은 연기에 시청자 호평 쏟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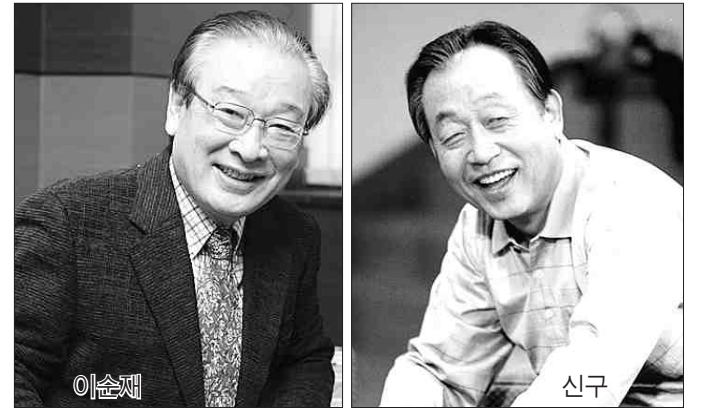
연재부터 이순재가 '야동순재'라 불리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드라마 속 신구의 죽음에 네티즌을 울렸다.

20대 주연 배우들의 부모나 회사 상사로 드라마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중견 배우들이 극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서 중견 배우에 대한 시청자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청춘남녀의 사랑을 엮어 줄거리인 미니시리즈에서 중견배우들은 '한때의 영광스런 나날'을 보내고 이제는 드라마의 주변을 받치는 조연으로 인식되기 쉬웠지만, 이제 중견배우들은 젊은 배우와 다를 것 없는 비중으로 찬근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각자가 지닌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 호평 속에 중견한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유독 빛이 났던 인물은 차매 노인 미스타리를 연기한 신구(71)였다. 신구는 실감 나는 차매 노인 연기로 눈길을 끌었지만 에이스에 걸린 증손녀 봄이(서신애)를 비롯해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기동역할로 드라마의 중심을 단단히 받쳤다.

신구와 같은 세대인 이순재(72) 역시 마찬가지다. 6개월이 넘도록 승승장구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시청자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단연 이순재였다. 변신이라고 불려도 좋을 과격적인 코믹 연기를 보여준 이순재는 이를 대신 '야동순재'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리며 원로배우라는 '윗자리'에서 시청자의 눈높이로 내려왔다.



3월 종영한 MBC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도 주인공은 장준혁 과장을 연기한 김명민이었지만 시청자들은 김창환과 이경길처럼 극의 흐름을 광경하 당했다. 놓는 중견배우들에게 고른 관심을 보였다.

신구와 이순재를 비롯해 나문희, 강부자, 이경길 등의 중견 연기자 속속 극의 중심에 진입하는 현상은 일차적으로 안정된 연기력에 기인하지만 청춘남녀의 밀고 당기는 사랑 일색인 미니시리즈가 빛을 잃은 시점과도 맞아떨어진다.

美 코미디언의 가수 비 풍자에 네티즌 논란

"조롱한 것인가" "떠위준 것인가" 의견 분분

미국의 유력주간지 '타임(Time)'이 최근 인터넷 표표를 통해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0인'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오른 가수 비를 두고 한 미국 코미디언이 자신 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비를 풍자했다.

그는 미국 케이블 TV 코미디 센터널 (Comedy Central) 채널의 '콜버트 리포트 (The Colbert Report)'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스티브 콜버트로, 이번 '타임' 조사에서

데 "나는 무한히(infinite) 겸손하다"며 관객의 웃음을 유도했다.

그는 또한 "내 현대차에 올라타. 김치도 먹고"라는 비의 히트곡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패러디한 뮤직 비디오를 내보냈다. 영상에는 '타임'지를 창문으로 내던지기도 하는 콜버트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인종주의적 시각으로 비와 한국인을 조롱했다"며 분노하는 비난과 항의의 글도 있었지만, "오히려 홍보 효과가 클 것" "그냥 미국식 흔한 코미디"라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Advertisement for Kugyeobonggi (국제보청기) featuring a horse and rider illustration. Text includes '창업 25년',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건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and 충장점.

Table of TV program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Columns include channel, program name, time, and episode number.

케이블·위성TV 14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OCN, and others. Columns include channel, program name, and time.

Advertisement for TBN 교통방송 (TBN Traffic Broadcasti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www.kjbb.com.